



<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김성묵 (현 강원레미콘 사장)		
면담자	이혜숙	면담지원자	
면담일시	2025. 10. 30.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3층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이혜숙	회차	2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0:37)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김성묵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3층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이혜숙이 하겠습니다.

2. 근황 (00:00:37~00:0:40)

면담자 :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뵙게 되네요.

지난번에 인터뷰 이렇게 사전 만남 갖고 나서 언제 이 시간을 또 맞추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구술자 : 그냥 뭐 똑같죠. 똑같이.

면담자 : 계획하시던 일은 마무리 잘 되셨어요?

구술자 : 예. 그런 거는 뭐. 다 지금

면담자 : 그때 어디 가신다고. 출장?

구술자 : 예 그러게요. 예 다 잘 다녀왔어요.

면담자 : 다행이다. 그래서 요즘에 또 좋은 소식 회사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어떻게 마무리 잘 되셔서 좋은 성과가 났나. 안경 쓰고 있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 안경 썼어요. 그런데 지금 벗어졌어요. 완전히

면담자 : 아, 책자 보시느라고?

먼저 본인의 성함과 출생지 생년월일을 기록을 위해서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 김성묵이고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생년월일은 1959년 1월 5일이요.

면담자 : 저희가 동양화학 인근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좀 갈등은 없으셨어요? 이걸 할까 말까 내가 뭐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다고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예 맞습니다.

면담자 : 그러면 허락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구술자 :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이 떠나간 것 같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공장들도 남아 있는 데가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한 사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응했습니다.

3. 강원레미콘의 설립과 발전 (00:02:40~00:08:23)

면담자 : 감사합니다. 현재 강원 레미콘의 위치는 학익동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어디에 위치 해 있다가 이사 오게 되셨나요?

구술자 : 아니 어디가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면담자 :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벽돌 공장이었는데 레미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벽돌 공장이 처음 생겼을 때 이름이나 몇 년도에 생겼나요?

구술자 : 86년에 생겼고요.

이름은 뭐 강원. 강원 콘크리트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 그 회색 벽돌 만드신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거 이렇게 네모 틀에다가 붓고 찍어냈을 것 같은 거 맞아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틀에다가

면담자 : 그럼 그렇게 틀에다 부어놓고 굳어지는 데 얼마나 걸려요? 콘크리트는?

구술자 : 그 양생 하는 거는 그거는 그날 찍으면은 하루!

면담자 : 야외에서 하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거기서 야외에서 하루.



면담자 :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가 시멘트랑 자갈이랑 모래랑 섞잖아요.

이 벽돌도 똑같아요?

구술자 : 그렇죠. 아, 벽돌은 저기 모래하고 시멘트.

면담자 : 물하고 모래, 시멘트 밖에 없는 거예요? 자갈은 안 들어가고요?

구술자 : 그렇죠. 부피가 커지니까 자갈이 들어가면

면담자 : 좀 약해질 것 같기도 해요.

구술자 : 약해진다는 것보다도 부피가 커지니까 이게 사이즈는 조그마한데

면담자 : 그럼 요만한 작은 벽돌만 만드시고 소위 말하는 그거 뭐지 구멍 뚫린 거.

구술자 : 블록벽돌 그것도, 그것도 생산을 하지만. 그건 그것도 역시 자갈을 넣을 수가 없죠.

이 면적이 작으니까

면담자 : 그렇게 두 종류 다 생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셨다가 완전히 레미콘 회사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구술자 : 90년도에 이제 저기 뭐야. 200만 호 저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레미콘 공장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몇 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미콘으로 바꾼 거죠.

벽돌도 물론 같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레미콘을 생산하게 된 거죠.

면담자 : 그때 레미콘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이 학익동에 도로나 이런 상황은 어땠어요?

한참 건물로 그때 많이 지을 때라고 하셨으니까.

구술자 : 그때는 그 학익동 지역은 전부 다 공장 지대입니다. 공업지대였습니다.

면담자 : 그럼 도로는 잘 깔려 있었겠어요?

구술자 : 크게 도로는 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차들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과 같이 그런 도로는 아니죠.

면담자 : 저도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셨는데 아버지 뒤에 타고 이렇게 쪽 갔던 기억만 나는데 기억에는 얼핏 물길에 있었거든요. 그게 학익천이었을 것 같은데.

구술자 : 지금 그거 복개¹⁾한 거 그거! 그거 얘기 그거겠죠. 그게 우리 공장 앞에 이렇게 짝

1) 복개(覆蓋)는 하천 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있던 하천 그걸 거예요. 아마

면담자 : 깨끗하진 않았어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면담자 :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비 오면 사람들이 좀 몰래 버리는 것 같다.

좋은 냄새가 안 난다. 하셨던 기억도 언 듯 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잠깐만 그러면 공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크기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좀 키우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가 공장이니까 넓게 있으니까

면담자 : 그 부지 안에서만 확장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때 찾아봤을 때 그 회사 건물이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부터 있던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 : 그럼 역사가 한 40년 된 거죠. 어떻게 많이 변해왔을까요? 학익동이랑 용현동의 모습이?

구술자 : 우선 뭐 공장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면담자 :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로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들이 보통 어느 정도 규모에 직원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구술자 :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다 큰 공장들이에요. 한국 강관이나 한국 농약 그다음에 뭐 대우전자, 동양화학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고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다 대체적으로 큰 공장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인천을 대표하는 공장들이죠.

한국 농약이나 저기 뭐야 동양화학 그다음에 한국 강관. 나중에 이제 신안스틸로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다 큰 공장들이 대우전자가 그렇고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조그마한 데가 없고 다 큰 데예요.

면담자 : 그 회사들 간의 교류는 없었어요?

구술자 : 그 당시에 그런 건 없어요.



면담자 : 너무 다른 업종이어서 그랬을까요?

구술자 : 그런 것도 있고요.

면담자 :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하고는 어땠어요?

구술자 : 특별히 저기 한 건 그 동네는 주민 위원 자체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공장밖에 없으니까

4. 강원레미콘 인근 마을모습 (00:08:23~00:12:11)

면담자 : 저 어릴 때 맞은편 쪽 초등학교 있는 쪽에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학익 초등학교 옆으로 살았다고

구술자 : 거기는 동일 방직, 흥안 방직 이런 방직 회사가 쪽 있잖아요.

저 한농! 길에 방직 회사들이 쪽 있잖아요. 그게 방직 회사들의 사택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면담자 : 저는 기억에는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전해만 들었는데 언니 오빠는

학익초등학교 다니시고

구술자 : 어느 학교 다녔어요? 거기 학익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면담자 : 언니 오빠는 다니셨죠. 저는 두세 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들은 것만은 있었고
나중에 아버지 회사에 자전거 타고 간 거는 한 6, 7살 됐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랑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언뜻 기억나고 이쪽에 살았었다. 초록 대문 집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기억 속에는 전혀 없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이쪽에 길 건너에 이제 이 방직 공장 사택들이 쪽 그 안에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옛날 일본식 집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먼저 그때 포럼 할 때 토론할 때
2호집이다. 3, 4호집 그런 저기가 그 일본식 저기들 집들, 사택들.

면담자 : 사택은 그럼 다 단층이었어요. 그때는?

구술자 : 그렇죠, 단층이죠.

면담자 :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학익 초등학교 주변이 다 지금
재개발되고 있더라구요.

구술자 : 없어졌습니다. 그 사택들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사택을 아닌 게
아니라. 한 채라도 잘 이제 좀 저기를 했으면 보관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이미 거기서는 다 재개발해서 철거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택이 일본식



주택이니까 뭐 다다미 방 뭐 다들 그런 거잖아요.

나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말로는 그렇게 들었죠.

면담자 : 저도 오빠들이 이제 옛날에 집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초등학교보다 약간 위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였다고 녹색 대문 집에 ‘ㄷ’형
집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빠 친구들은 동양화학 다니시는 부모님 있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학교에는.

구술자 : 그럴 수 있죠.

면담자 :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있어서

구술자 : 동양화학이 어쨌든 인천에서 큰 회사였으니까

구술자 : 좀 너무 다 없어져서 아쉬운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러게요. 그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그런 사택들도 진짜 사진이라도 제대로
찍어놓고

면담자 : 찍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구술자 : 근데 그렇게 옛날에 사진을 그렇게.

면담자 : 그때는 필름이었으니까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죠.

구술자 : 그렇게 집을 찍고 그런 경우는 거의. 대문 앞에서 찍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집
안 내부를 이렇게 찍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면담자 :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요즘에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던가 기부를 하신다던가 하는 것도 많던데 어떠셨어요?

구술자 :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런 게 저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주민들하고도 접촉할 저기가 없었고 범위가 안 되고

면담자 : 직원분들은 근데 그 인근에 안 사셨어요?

구술자 : 직원들도 그 인근에는 안 살고, 다 연수동이나 이런 데들 다 살았어갖고 없었어요.
거기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5. 요즘 직원들에 대하여 (00:12:11~00:15:00)



면담자 : 요즘 직원들하고 옛날 직원들 생각하면 어떠세요?

요즘 하도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구술자 : 그러게요. 이제 이 분위기 변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 내 회사! 우리 회사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건 이미 지나갔고요. 동료 간에도.

면담자 : 회식은 어때요. 사장님?

구술자 : 회식은 아직까지는 뭐 한다! 그러면 되는데, 저기(회식비)가 대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조금 아무래도.

면담자 : 늦게까지 2차 3차 가고 그런 게 없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냥 심한 경우에는 점심 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면담자 : 피곤해 한다고.

구술자 :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을 즐기겠다 이거죠.

옛날에 못 먹고 이럴 때는 회식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가서 술도 실컷 먹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괜히 참석 해가면서 피곤한데 안 먹는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면담자 : 입사. 아니 회사 창업하시고 입사하셔가지고 혹시 오랫동안 다니신 직원분도 계세요?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구술자 : 그때 초창기에 다닌 사람들은 이제 없죠. 다 나갔죠.

이제 나이가. 다 나이가 60이 넘어갔으니까. 내 나이도 60이 넘어가는데,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지. 중간에 다.

면담자 : 정년 퇴직은 몇 세예요?

구술자 : 요즘 정년은 60이죠.



면담자 : 회사마다 경험자들을 정년하시고 나서도 조금 더 연장하기도.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연장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면 우리도 그런 거 이제 했어요, 했는데

면담자 : 그랬는데도 관두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 관둔 게 아니라 연장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또 여기는 좀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커지니까, 힘든 것보다도 회사가 이제 막 한 몇 년씩 해 주니까 또 다음 사람도 또 해줘야 되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뭐!

6. 콘크리트, 믹서차, 펌프차 이야기 (00:15:00~00:26:42)

면담자 : 얼마 전에 제가 다큐를 보다가 레미콘 차량 청소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게 이렇게 열심히 굴러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테두리 그 안에서 굳어서 있대요.

구술자 :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면담자 : 들어가서 그걸 깨더라고요.

구술자 : 예. 예 맞습니다.

면담자 : 그러면 그 차주가 직접 파는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건 자기 차니까!

면담자 : 기간이 있나요? 몇 달에 한 번 한다던가?

구술자 : 그건 아니에요. 매번 끝나고 나면은 청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청소가 덜 됐다는지 뭐 그러면 아무래도 함석 철판 부위에 좀 들어붙은 게 덜 빠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거죠.

면담자 : 위험하진 않아요?

구술자 : 글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뭐 세상에 다 위험하니까 본인들이.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경 써야죠. 부주의죠. 어떻게 보면

면담자 : 제가 본 거는 외국 사례였는데 이게 드릴 같은 걸로 깰 정도로 그렇게까지 쌓이나? 했거든요.

구술자 :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청소를 평상시에 매일매일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게 좀 오래되면 아무래도 쌓이겠죠.



면담자 : 그러면은 어떤 공사 시작되면 레미콘 차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움직일 때는 못할 것 같고 그날 작업량이 끝나면 저녁에 물로 해주나요?

구술자 : 그렇죠. 물로다가 다 물로다가 해서 물로다가 씻어내는 거죠.

저기를. 드럼을 돌리면서

면담자 : 그러면 원래 이 레미콘이 보면 미리 섞어서 장소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돌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탄산음료 주문하면 원액이랑 물이

탄산수랑 그다음에 섞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섞어놓은 걸 짜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애는 그 기계 콘크리트 섞는 레미콘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요?

구술자 :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조 시설에서 우리가 공장에서 제조 시설에서 해서 다 믹싱을 해갖고 이 차에 들어갈 때는 다 그냥 제품이 들어가는 거야.

제품이 완제품으로! 근데 단지 그게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드럼을 돌려주는 거죠.

면담자 : 굳지 말라고?

구술자 : 그렇죠. 굳지 말라고도 그렇고 이게 그냥 가면 아무래도 재료가 분리될 수 있으니까 그걸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드럼을 돌리는 거예요. 분리될까 봐서.

면담자 : 조금 더 신기하게 또 본 것 중에 요즘에 빌딩이 엄청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공법 이것저것 막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높은 곳으로 짜주는 그런 거는 또 다른가요?

구술자 : 그런 것 그렇죠. 그런 제품은 또 그런 제품대로 또 다르게 하는 거죠.

면담자 : 웬지 조금 더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건 약품 처리를. 별도의 또 약품이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그게 그 제품은 또 별 다른. 또 이제 뭔가 또.

면담자 : 비밀스러운 뭐가 들어가나요?

구술자 : 아니 아니요. 좀 더 이제 저기를 해야지. 제품을!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서 또 했을 때 강도도 그만큼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400m 이런 거 그게 끌어올리기까지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고층 100층 이렇게 하면 400m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싸 갖고 400m를 끌어올리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면담자 : 펌프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제품을 또 개발해야죠.

우리가 시험 생산도 해본 적도 있고 해서

면담자 : 저 또 신기했던 게 슈퍼 콘크리트 얘기도 들었거든요.

100년 이상 수명을 보더라고요. 요즘에 다리 공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건물 지을 때 그 강도를 위해서 슈퍼 콘크리트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런 벽돌 만들고 이렇게 건물을 벽에 넣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

구술자 :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제품을 그거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저기를 해야죠.

면담자 : 회사가 그러면 마다 그런 자기만의 배합 노하우가 다 있으신 거죠? 공유 안 하시고요?

구술자 : 그거를 공유를 해요.

면담자 : 특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슈퍼 콘크리트²⁾나.

구술자 : 아니 뭐 특별히 특허라기보다도 뭐 특별히 특허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면담자 : 비싸긴 할 것 같고

구술자 : 그렇죠. 당연히 좀 비싸죠. 아무튼, 그건 회사마다 그거는 개발해서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개발 안 하고 저기 하는 이유가. 사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봐야 뭐

면담자 : 흔하게 쓰이는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모래는 요즘은 강모래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다 모래를 계약해서 가지고 오시나요?

구술자 : 바다 모래도 쓰고, 또 산에서 나는 모래도 쓰고 그렇죠.

면담자 : 산에서도 모래가 나요?

구술자 : 이제 우리나라 흙이 보이면 다른 나라도 하지만 모래 흙이 있어요.

2) 나노 소재와 강섬유를 첨가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이 5~10배 뛰어난 초고성능 콘크리트.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제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토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흙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을 깨갓고 그 부산물 그거 갖고 또 모래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면담자 :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어렸을 때 그거 생각했거든요.

사우디나 이렇게 사막에 있는 나라들이 모래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아니 널린 게 모래인데 그런 건축 자재에서는 모래가 그 모래가 아니죠?

구술자 : 그렇죠. 그 모래는 너무 가늘어 갖고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가늘어서

면담자 : 우리가 아는 모래는 사실 모래도 아니고 돌이라고 봐야 된다고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구술자 : 그렇죠. 그 규격이 있어요. KS³⁾에서 정하는 규격. 그런 모래들은 그 규격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면담자 : 너무 고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 같은 거 만드는 모래도 곱잖아요?

구술자 : 유리 모래는 또 별도로 또 있죠.

면담자 : 그러니까 엄청 귀하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 석영! 그건 맞아. 또 그것도.

면담자 : 나오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하고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건 별도로

면담자 : 우리나라 지금 바다 모래를 많이. 아무래도 파잖아요.

구술자 : 바다 모래를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담자 : 해안선도 막 변한다고 그거 거기서 파면 이쪽에 파도가 달라져서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근데 우리가 준설도 하잖아요. 이 모래라는 거는 세상의 이치는 아주. 다 자연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는! 고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서 황사가 날아오면은 그 황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런 거 녹음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면담자 : 땅도 비옥하게 해준데요.

구술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쨌든 침적도 되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럼 바다가 자꾸만 또 육지에서 또 흘러 내려가고 흙들이 그러면서 오랫동안 파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큰 돌들은 작게 또 부서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다에 지금 침착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래 바다에 모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그런 어떤 과정, 자연의 섭리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어느 일정 부분은 또 해줘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전문적인 저기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준설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면담자 : 바닷가 주민들하고 꽤 갈등이 많이 빚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맞아요. 이렇게 팜으로서 그게 자꾸 육지가 무너져 내려간다.

이제 해안선이 무너진다. 그런거죠.

면담자 : 부산에서는 여름 되기 전에 모래를 해변가에다 몇 차를 이렇게 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는 또 모래를 캐고 있고

구술자 : 요즘은 그렇게 안 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담자 : 많이 줄었어요?

구술자 : 안 캐요. 예.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바다 모래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하도 그런 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니까 바다 모래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면담자 : 그럼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미콘 믹서 차가 현장에 가면 만약에 높은 곳에 보내는 건 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펌프카가 있잖아요.

면담자 : 그러면은 믹싱해 온 차에서 펌프카로 주면 펌프카에서 쏘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카는 움직이진 않겠네요. 개는 현장에 있는 거니까.

구술자 : 그렇죠. 현장에서 있는 거죠. 그걸 받아서 올려주는 거죠.

면담자 : 그러면은 그때 이동 거리가 90분인가라고 하셨잖아요.

믹서 차가 현장에서 만약에 멀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구술자 : 현장에서 뭐 한다고요?

면담자 : 네. 여기 아파트 짓고 있는데 레미콘 회사가 90분 안에 당도를 못 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구술자 : 근데 대개 다 좀 해요. 다 그 말이 그 다 저기에 있어. 그 범위 내에 있어요. 대개 보면은 현장들이. 왜냐하면 현장이 큰 현장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저기가

면담자 : 아예 레미콘 회사가 잠깐 들어간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구술자 :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면담자 : 그렇게 현장을 그런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잠깐?

구술자 :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데, 뭐 인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인천은 90분 내에 못 갈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면담자 : 인천도 90분 걸리고요. 수원도 90분 걸리고요. 서울도 90분 걸린데요.

구술자 : 그러니까 못 갈 수 있는 거리는 없잖아요. 대개가 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인천을 벗어나서 수원 서울로는 안 가더라도 대개 다 돼요.

7. 주민과의 갈등 (00:26:42~00:30:27)

면담자 : 지난번에 언뜻 그 회사를 이사를 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분위기는 어때요?

구술자 : 아 저 뭐야. 우리는 뭐 일단은 옮길 계획은 없어요.

면담자 : 그래도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는 남아 있을.

구술자 : 어차피 그 동네가 다 뭐야 레미콘을 필요로 하니까.

면담자 : 그러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진짜 현실로 고민이 되시겠어요, 그전까지야 괜찮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들이 다 이사 가는 건 약간 반대라서요.

구술자 : 그럼요.

면담자 : 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지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나쁜 놈도 있어야 되고, 좋은 놈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뭐가 이게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면담자 : 전부 다 주택만 들어와요.

구술자 : 그렇죠. 그 주택만 들어와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이 또 멀리 또 출퇴근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 남아 있는 공장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부국 사료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부국 사료 다 지금 철거했더라고요.

요새 사진이라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 철거했다고요. 이제 다.

면담자 :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술자 :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좋은 곳에 편리한 곳에 집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니까 또 건설회사가 거기에 부응해서 짓고

면담자 : 분명히 공업지대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너무 다 주거 단지가 막 밀려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구 쪽에 가보면 제가 이제 수업하러 갔는데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막 다세대 주택들이 몇 동이 있고 '이 동네는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런 지구가 있더라고요. 아직

구술자 : 그렇죠. 거긴 그래 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멀리 가면 출퇴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기가 돼야지 공장이 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들어왔으면 허가 범위를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에서는 주민들도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공장이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 내용대로 지켜서 가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 불편해. 나가!'고 이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관에서도 어떤 대책도 못 세우고 너무나 그냥 막 민원만 자꾸 들어오니깐 근데 사실은 필요한건데. 다 필요하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면담자 : 시나 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택도 물론 좋지만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재정적으로도 그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구술자 :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로!

면담자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뵈다고 해도 회사들이 자꾸 이사를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술자 : 예 맞아요. 참 답답한 얘기죠. 새로 들어오지 못할지언정 있는 데들은 어떻게든지 저기가 돼야 되는데.

8. 레미콘 기사와 회사의 공존(00:30:27~00:43:36)

면담자 :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빠 회사 차도 같이 타고 가족들도 갔던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는 차에서 술 먹고 지금도 들먹졌지만, 그게 그냥 막 너무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데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은 그런 거 어쨌든 사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또 각자의 개인들도 그런 거 싫어하고 그렇죠.

면담자 : 회사 안에 지금 그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내근직 직원들이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러면 레미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직원이신 거예요?

구술자 : 이거 다 개인 사업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면담자 : 그러면 자기 레미콘 차 가지고 이렇게 동업인 거예요. 말하자면?

구술자 : 동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차였는데 다 분화해 준 거죠.

면담자 : 그런 분들은 그러면 건설 경기에 따라서 바빴다 안 바빴다 하시겠구나.

구술자 :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기가 돼요.

면담자 : 사장님이 그러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건물 짓는 거 수주를 따오시는거고.

구술자 : 그렇죠. 우리가 영업은 다 하는 거죠.

면담자 : 그 사람 들은 납품하고.

구술자 : 그거 운송만 하는 거죠.

면담자 : 보통 인천 시내 안에서 이렇게 건설 들어가시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왕복하실 수 있어요. 레미콘 기사님들은요?



구술자 : 그때그때 물량에 따라 다르죠. 최대 10번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렇게 가까운 데 가면은 그럴 수도 있고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해요.

면담자 : 새벽부터 하시니까.

구술자 : 아니야 새벽부터 안 해요. 7시부터 6시까지 주간만 해요. 주말에 다 놓고

면담자 : 그거 규정 있지 않아요. 시내에 다닐 수 있는 시간 같은 거요?

구술자 : 그거는 별도로 통행 허가증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해요.

면담자 : 작년인가 세륵기 회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 옛날에는 공사 차량 막 들락날락하는데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엄청 지저분하게 길게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소에 궁금한 그걸 여쭙봤거든요.

구술자 : 모든 공사장에 그 세륵기⁴⁾가 설치가 돼요.

면담자 : 요즘에는 그렇던데 참 구경했었어요. 그 사장님하고도 아는 분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밀접하잖아요. 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인천 건설
경기 어때요?

구술자 : 어렵죠? 뭐.

면담자 : 근데 지금 회사 옆에 동네는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구술자 : 지금 다 중단됐고. 다 끝났고. 끝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전에 했던 것은 다 끝났어요.

면담자 : 그럼 이렇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봄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술자 : 특별히 준비할 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하는 거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하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현장 그 현장이 하나 끝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현장들도 있으니까

4) 세륵기(洗輪機)는 건설 현장, 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차량 바퀴와 하부에 묻은 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장비다.



면담자 : 시멘트는 어느 쪽에서 갖고 오세요? 강원 레미콘이면 강원에서 갖고 오나요?

구술자 : 아니야. 아니야! 시멘트는 저기 지금 뭐야 연안 부두 사이 도로 있잖아요.

배로 다 들어와요.

면담자 : 배로 옮겨오는 거예요. 하긴 한 번에 많은 양을 갖고 오긴 하겠네요.

그 모래는 산에서도 많이 파오시고 모래는 뭐 그런 식으로 다 생산하고 그러면은 청소하면 그것도 폐수라고 하나요?

나중에 자동차 그 안쪽 청소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는 건설할 때 쓸 수는 없을 거잖아요.

물 어떻게 관리돼요?

구술자 : 물이요? 물은 레미콘 공장은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요. 물이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이 돈이고 비비려해도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에서는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요.

면담자 : 걸러서 또다시 써요?

구술자 : 걸러서 다 써요! 다 써요. 침전시키고 해서 다 써요.

면담자 : 그러면은 그 만약에 레미콘 빙글빙글 도는 그 안에서 청소할 때 나온 부스러기들도 재활용돼요. 개는 그냥 버려요?

구술자 : 그거는 저기 해서 나오면 그거는 모아놔다가 폐기물로 버리죠. 그거는

면담자 : 건설 폐기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 한 번 굳은 거는 못 쓰는구나.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큰 건물들 이렇게 허물고 나면 낡아져서 옛날에 애네들 뽀셔갖고 다시 쓰면 안 돼나.

구술자 : 아니 그거는 안 되요.

면담자 :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걸 그리 부셔서 만약에 바다를 매운다든가 이럴 때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술자 : 그래가지고 거기서 폐기물 들어가면은 그것 일부는 해서 매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다 폐기물로 나가죠.

면담자 : 물은 재활용하지만

구술자 : 그렇죠. 물은 뭐!



면담자 : 물 쓰는 양 엄청 많겠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물이 저기 말하자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하 탱크도 만들어 놓고 많이 했어요.

비 오면은 다 그걸 물 다 받아요. 다 그 시설을 해놨어요.

면담자 : 비 많이 오면?

구술자 :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소용이 없어요. 왜 탱크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비가 와야죠.

면담자 : 빗물도 다 이용하시고 그거 되게 좋다. 왜 건물마다 그렇게 지하에 하나씩만 있어도 침수 많이 줄꺼같고.

구술자 :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니까 사실은 주택 허가 받을 때 차고를 만들 물탱크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돼요.

이 사실은 이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허드렛 물은 그걸로 다 쓸 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원 절약이죠.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는 빗물이 비가 올 때는 폭우로 오잖아요. 때마다 돼야 오니까 1년 중에 여름에 오는 비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물이 다 그냥 도로, 다 바다로 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각 가정마다 이렇게 물탱크를 해놓으면 허드렛물 마당 청소하고 나무에 물 주는 물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면담자 : 작업실 근처에 동네 사장님이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거를, 빗물 저장소 같은 거를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물로 화분에 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훨씬 잘 자란다고 .

구술자 : 그럼요.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면담자 : 물 줘보니까 확실히 훨씬 잘 자라요. 맞아요. 수돗물 주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구술자 : 그럼요. 수돗물은 거기에 화학약품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면담자 : 그것도 나쁜 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물 이렇게 조리개로 받아갖고 항상 주거든요. 여름에 잘 자라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택은 대부분 그 테두리로 이렇게 빗물 이렇게 고여서 그 통 파란색 큰 물통 하나만



놔도 각 집마다 유용하게 쓸 것 같긴 해요.

구술자 : 지하 저장고를 조그맣게라도 하나씩 각 만들어 놓으면요.

상당히 좋은 점이죠.

면담자 : 동양화학이 요즘에 이사 가고 나서 학익지구가 막 개발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민원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은?

구술자 :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죠. 안 생기게끔!

면담자 : 뭐가 그렇게 시끄럽거나 하진 않던데.

구술자 : 그렇죠. 시끄럽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먼지가 난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이런 거를 가동을 하죠. 계속 물을 뿌려주고 그렇게 하죠.

면담자 : 그러면 이렇게 모래 차가 어쨌건 모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쏟을 때 그럴 때 그럼 스프링클러를 돌리시는 거예요.

구술자 :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작업 현장 이런 데 드문드문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놔놓고 물을 마당을 적시는 거죠.

항상 그때, 그때 오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제가 개발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만들어놨는데 차가 움직이면은 물이 쏟아지게끔 그 센서에 의해서 물이 쏟아지게끔 제가 그런 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마당에 뿌리게.

면담자 : 차가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 그 진동으로 감지돼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구술자 : 그것도 제가 해놨어요.

면담자 : 개발? 와우!

구술자 : 제가 발명해냈으니까

면담자 : 발명이 내가 필요해야 한대요.

구술자 : 그렇죠. 발명이라기보다도 그냥 아무튼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놨죠.

다들 놀래요. 해놓은 데 없어요. 그렇게! 다들 놀래요.

그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장치가 있냐고.

면담자 : 근데 아직은 지금 회사 옆으로 가깝게는 집이 없죠.



오피스텔인가 뒤에 좀 큰 거 그 안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낮 시간에 안 계실 것 같고.

구술자 : 그 사람들이 참 그거 다 사무실이에요.

면담자 : 그러니까, 근데도 민원을 넣어요?

구술자 : 그 사람들도 민원 많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 아니 그 건물 지을 때 여기서 콘크리트 댔을 텐데.

구술자 : 아니 지을 때 콘크리트 댔 거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그런 거 생각하나요? 근데 그렇게 뭐 자기들한테 크게 피해가 오는 게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냥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없는 거죠.

면담자 : 그래도 회사가 많이 있을 때는 서로서로 약간 그런 민원 받았을 때나 이럴 때도 회사 하나만 남아 있는 것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살아간다는 개념으로다가 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이기주의도 아니고 너무나 무슨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설명이 안 돼요.

면담자 : 아니 있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요. 가끔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이 호수 앞에 있는 회사로 가지.

구술자 :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거 좀 개선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면담자 : 후에 요즘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그 동네 재개발되는 게 제일 크겠죠.

구술자 : 뭐 그렇겠죠. 뭐

9. 주변 변화에 대한 생각(00:43:36~00:48:50)

면담자 : 거기 뭐 미술관도 들어오네.

구술자 : 뮤지엄 파크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면담자 : 정확하게 위치가 지금 사장님 회사 오른쪽에도 빈. 지금 동양화학이 이사 갔으니까 비어 있고 맞은편 앞에도 비어 있던데

구술자 : 어디냐면요. 그 맞은편 앞에는 또 저기고요. 지금 여기 동양화학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를 그리며] 여기! 여기가 우리 공장이고 동양화학 건물이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가 주유소 동양화학 건물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뮤지엄 파크가 들어오는 데가 이쪽입니다. 동양화학 건물이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

면담자 : 건물 하나 남긴다는 얘기가.

구술자 : 그러게요. 그거 건물 남기는 거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에는 또 뭐 허문다고 그러기도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 어차피 기부 체납 된 거거든요.

그게 다 거기가. 그래서 남는 걸로 알았는데 맨 처음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들리는 소리가 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더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면담자 : 이쪽인가요? 지금 보면 왜 막 거기도 뭐 하고 있던데 거기는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구술자 : 어디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는 지금 이쪽 이쪽에 지금.

면담자 : 뭐 하고 있더라고요. 땅 파고 이쪽에 지금 큰 공터 바로 앞에 있어요.

구술자 : 그러게요. 여기에 지금 공사 현장 사무실 이렇게 쪽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딴 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인천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에요. 여기 사무실 할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면담자 : 거기에 저는 이쪽에 공터가 많아서 거기 아파트가 또 들어오나 했더니

구술자 :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공사 현장 사무실이에요.

면담자 : 직원들은 자주 안 바뀌어요. 그러면?

구술자 : 네. 특별히 자주 바뀌고 그러는 건 없어요.

면담자 : 복지가 좋은가 보다.

구술자 :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근데 젊은 친구 애들은 다 저기 해요. 개들은.



면담자 : 직원분들 중에 가족은 없으세요?

구술자 : 없어요. 젊은 애들은 뭐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애들은 개들은 우리나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삼성, 현대 안 다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1, 2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그 젊은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좀. 한곳에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다른 데 가면 또 역시 좀 다니다 또(퇴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젊은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면담자 :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신입사원을 경력자를 다 뽑는대요.

신입사원을 안 뽑고! 왜? 그랬더니 일할 때 이렇게 선배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업무로 돌아간다. 이런 거. 근데 배움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 올해 400명인가? 작년에 800명 뽑았다가 올해 400으로 줄었는데 아무도 신입사원을 원하지 않는대요. 부서가.

그래가지고 경력자만 다 받으려고 그러고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고! 가르쳐 났더니. 힘들게 가르쳐 났더니 퇴사하고.

구술자 : 그러니까요. 내가 그랬잖아! 그런 애들이 1, 2년 다니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런다고. 한곳에 정착을 못 하고.

면담자 : 그래서 뽑을 때 중소기업이든 어느 회사든 최소한 2년 이상은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좋으나 싫으나 어느 정도 버티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증명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그것도 그러니까요. 좀 일할 만하면 그만두고 가고, 그만두고 가고.

면담자 : 젊은 사람들은 또 취직할 곳 없다고 그러고 삼성, 현대, SK 그래봐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전체에 몇 프로 안 되는데 약간 이상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면담자 : 양질의 일자리가.

구술자 : 직업상, 또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그게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근데 우리 옛날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처음서부터 삼성 현대가 있을 수 없는 거고 뭐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거쳐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한마디로!



10. 기술 개발에 관하여(00:48:50~00:58:54)

면담자 : 회사 안에는 지금 뭐 연구소가 있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구술자 : 그렇죠. 연구소는 없어요. 연구소는 따로 없고, 우리가 이제 시험실에서 그런 거를 감당해서 하는 거죠.

면담자 : 요즘 얼마 전에 났을 때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한 설명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술자 : 그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기예요. 우리가 이제 추울 때 더울 때 이럴 때는 작업을, 추울 때는 특히 이게 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언단 말이에요. 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강도를 빨리 굳어갓고 그거를 제 강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또 비 올 때 물이 10만 들어가면 되는데 비가 오면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도가 또 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자기 강도를 나올 수 있게끔하는 그런 제품.

면담자 : TV에서 보면 되게 추울 때는 비닐 이렇게 치고 안에다가 고체 연료 태운다고?

구술자 :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갓고 그게 또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데서 질식사고 나고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제품을!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면담자 : 콘크리트 굳을 때 열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고체 연료를 태워야 될 정도예요?

구술자 : 그렇죠. 워낙 바깥의 온도가 10도가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면담자 : 그렇게 양생 과정에서 불을 피워야 될 정도로 그 몇 도 이상 내려가면 해라 이런 게 규정이 있나요?

구술자 :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온도가 5도 이하로 가면은 우리 건축 쪽에서 저기 타설을 하지 말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불을 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없애고 콘크리트를 아예 그렇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 제품을 쓰면은 저기가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정리 후



면담자 : 겨울에 유용한 제품을 개발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겨울에나 비 올 때 쓸 수 있고 그런 거죠.

면담자 : 비 올 때는 수막이 생기거나. 물이 더 스며들지 않게? 그런 건 안 되려나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빗물이 섞이지만 얇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구술자 : 그렇죠. 어떤 코팅 작용을 하는 거죠.

면담자 : 원래 비 올 때도 콘크리트 작업 안 한다고 옛날에 들었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많은 비가 올 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은 또 할 수 있게끔까지. 그런 거 정도죠.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면담자 : 하루만 당겨도 건축비 엄청 준다고 하셨어요.

구술자 :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용한 거가 되는 거죠.

면담자 : 아파트 기초 공사하고 이렇게 벽 세울 때 보면 옛날에는 한 층씩 올라갔거든요.

지금 두 층씩 올라가더라고요.

구술자 : 아니에요. 아니 한층 씩 올라가요. 지금도! 큰일 나요.

면담자 : 자고 나면. 그만큼 빨리 굳는 건가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빨리 굳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보통 한 층씩 5일에 한 층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술자 : 한 요즘 보면 한 3~4일에 한 층씩 올라갈 거예요.

면담자 : 그쵸. 이상하다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계속 공사하고 있는 데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간다고 정기적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층씩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짧아졌구나...

구술자 : 빨리! 그러니까 작업성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그런 건 있어요.

면담자 : 빨리빨리 옛날보다 굳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구술자 : 그러니까 보강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강을 하면서



면담자 : 빨리 올라가거나 그러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공구리⁵⁾가 덜 굳은 상태에서 위에서 하중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광주 사태가 그런 거죠. 뭐 무너지고 광주 그런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을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보강을 다 해야죠. 밑에 기둥 받쳐놓고 다 해야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10개를 받쳐야 되는데, 한 5개만 바친다든지 그러면 위에서 하중이 걸리잖아요.

이게 굳지를 않았는데. 그 굳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둥이라도 이렇게 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힘이 가해지니까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거를 모두 해놓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면담자 :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구조 기술인 건가요?

구술자 : 글썄 그 무슨 기술이라고 그러나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면담자 : 형부가 구조 기술을 하시거든요.

구술자 : 구조기술사⁶⁾. 그럴 수도 있죠. 난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기술이라고 그러는지는

면담자 : 그러면은 그 벽체를 세울 때 쓰는 콘크리트랑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콘크리트랑 다르거나 하진 않아요. 같은 거예요?

구술자 : 강도가 다르죠! 강도가 다르죠. 이걸 벽체는 아무래도 기둥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건물의 기둥이잖아요.

면담자 : 더 단단하게 해야될 것 같긴 해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면담자 : 엄청 두껍잖아요. 보통?

구술자 : 요즘은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막 두껍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저기 하니까 두껍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보면 그래요.

5) 주로 토목,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공구리 친다'고 한다.

6)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설계, 분석, 평가, 감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면담자 : 보인가요. 보가 있는 건가요?

구술자 : 없잖아요.

면담자 : 요즘엔 벽이 보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벽을 갖다가 강도가 좋은 거를 하는 거죠.

면담자 : 그것도 콘크리트 같은 거 기술이 좋아져서 가능한가요?

구술자 :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기둥 이런 데로 뜬금없이 큰 기둥이 이러니까 실내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거 되면 참 건물이 가리고 옛날 건물들은 그래서 참 뭐라고 그래, 쓸모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면담자 : 중간에 동그란 기둥 큰 거 있고요.

구술자 :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면담자 : 근데 웬지 안전을 생각하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웬지 지진이나 이런 거 났을 때

구술자 :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근데 그냥 평상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상시는 그러니까 이 벽체 이런 게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아파트 이런 데 막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력벽⁷⁾은 터도 되는데 저기 한 거는 트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터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털어도 되지만 기둥 역할을 하는 것들은 못 치게끔 하잖아요.

면담자 : 그러면은 레미콘 차량이 현장으로 갈 때 지금 오는 차량은 벽체용 콘크리트를 갖고 오는 차량인 거고 그다음에 천장용 갖고 오는 차량 하고가 분리되는 거예요.

구술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 현장이 벽체를 한다. 그러면 그게 한두 대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날 당일 날은 여기만 치는 거가 되는 거죠.

또 슬라브(slab)⁸⁾ 칠 때는 또 다른 날 슬라브(slab) 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날 이렇게, 이렇게. 막, 막 그렇게는 칠 일이 없죠.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상부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까지 전달하는 구조적인 벽.

8) 건축 구조에서 건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이루는 얇고 평평한 판 형태의 구조물.



면담자 : 애가 완성돼야 지붕이 되는 거죠. 칠 일이 없죠.

벽 세우고 지붕하고 벽 세우고 지붕 치고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같이 쳐야 할 이유는 없죠.

면담자 : 그럼 현장에서 지휘 잘못하면 큰일 나네. 지붕꺼 와야 되는데, 벽체꺼 와야 되는데...

구술자 : 그건 기술자가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그냥 진짜 엉터리죠. 기술자가 아니죠. 그거는

면담자 : 계속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아파트 현장 지나갈 때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을까? 저분도 청소 어떻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출도 하시고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면담자 :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사우디나 이런 데로 가서 일하시고 공사하고 그랬잖아요.

레미콘 회사들도 그랬나요?

구술자 : 아니 건설 레미콘 회사가 한 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간 거죠. 건설회사가.

11. 건설업의 미래와 강원레미콘의 미래이야기(00:58:54~01:17:55)

면담자 : 그러면 작업자는 가서 일하는 걸로 가시는 거고?

구술자 : 그렇죠. 건설회사가 다 직종별로 다 사람 모집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자기네가 필요한 장비 다 구해서 가는 거죠.

면담자 : 옛날에 아빠가 이제 강관에 다니셨으니까 그 건물 지을 때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회가 있으셨는데 엄마가 반대하셔서 안 가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회사를 오래 다니셨던 분하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보조 갔는데, 그 옛날 얘기 막 나오는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은 거예요.

엄청 더운 나라에 간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잖아요.

일단은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때가 아니니까

구술자 : 그렇죠. 다 그분들의 고생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든 거죠.

면담자 : 많은 건설 관계자분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종은 어떠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나요. 있어요?

구술자 : 우리요? 우리는 없어요.



면담자 : 다 한국인이세요?

구술자 : 그렇죠. 없어요.

면담자 : 왜 레미콘 기사님들은 외국인들이 없을까요?

구술자 :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면담자 : 차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구술자 : 아니 그런 건.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직 외국인 애들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은 글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외국인이 저기를 모집해서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괜찮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안 그러면 다른 것 같이 다 떠나가겠지. 택시기사, 버스 기사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기 하니까 또 그런가 보죠.

면담자 : 건설 장소에 가면 노동자분들이 외국인이 더 많다.

구술자 :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거의 다.

면담자 : 다 한국인이라는 것도 좀 오히려 더 특이할 것 같기는 해요.

다 한국인이 이거 좋은 거다. 나중에는 아마 외국인 없으면 집 못 지을 거라고

지금은 그분들이 오래 일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고요, 그 아랫사람을 부리는 역할까지도 하신데요. 지금은.

구술자 : 그럼요. 예, 십장 반장들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 또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막 10년 일하시다가 나라로 돌아가셔가지고 건설하는 일 하시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기서 노하우 쌓아서 가져갔고

구술자 : 우리나라 옛날이랑 똑같은 거죠.

면담자 : 기회의 땅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문직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구술자 :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렵죠.

면담자 : 마지막으로 이번 구술 기록이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구술자 : 글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나간 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어쨌든 우리가 진짜 옛날서부터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고 나면 옛날 게 다 없어지면.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하나 그렇게는 발전사 과정을 알아야 또 앞으로 또 나갈 텐데 이게 딱 끊어진 상태는 안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어차피 우리가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면담자 : 이어지는 역사의 하나 한 편이 그 왜 건물이나 무슨 공사 끝나면 돌 이렇게 박잖아요. 왜 몇 월 며칠날 누가 공사를 했습니다.

구술자 : 주춧돌! 다 그게 기록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옛날에 집 지으면은 상량⁹⁾ 시켜갖고 위에 그거 하잖아요! 집 그게 다 그 집을 짓는 그 저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가, 사람인데 사람은.

면담자 : 이름을 남겨야죠.

구술자 : 아니 이름을 남기는 건 둘째 치고

면담자 : 회사 이름부터 좀 남기고

구술자 : 그런 거는 중요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런 산업이 어떻게 돼서 왔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옛날 것 없으니까 다 일일이 찾아 갖고 추정하는 거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기록 문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래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게.

면담자 : 잘 남겨놨으니까.

구술자 :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뭐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그 시대의 생활상 모든 게 다

9) 상량(上樑)은 한옥 건축에서 기둥과 보를 세워 골조를 완성한 뒤, 가장 높은 곳에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자 그 마룻대(상량) 자체를 의미, 이때 재난 방지와 복을 기원하며 기록한 글이 상량문입니다. 상량문에는 건물 정보와 기원문이 담기며, 불을 막는다는 의미로 용(龍)과 거북(龜) 글자를 양 끝에 쓰고 '입주상량(立柱上樑)'과 축원문을 적는데, 이는 건물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거의 남아 있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정확하게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 : 이런 산업적인 인터뷰하는 게 제가 잘 모르니까 힘들기도 한데 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런 게 더 많이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또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저분들 기억이 온전하셨을 때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싶기도 해요.

구술자 :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사진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대강 이렇구나. 하고 알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나간 다음이라도 지금 이 건물 지으면 상량식 해갖고 그 위에 석가래에다가 그거 했다는 거 아마 저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모를 걸요.

면담자 :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술자 : 그게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면담자 : 요즘은 이제 아파트나 주택 지을 때 그걸 안 하니까

구술자 : 그러니까요. 지금 단독주택에 저도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독주택도. 그럼 이제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내가 우리 집 올리는 이런 걸 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억해서 상량, 지금 애들한테 상량식이라고 그러면 모를 거야. 그게 뭐야? 그럴 거야 아마.

면담자 : 작게 제도 지내고요.

구술자 : 그럼요. 그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못 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막걸리 한 잔씩 주고 그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면담자 : 이거 먹고 힘 좀 내서 잘해줘.

구술자 : 내 느낌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떡도 나눠 먹고 그런 어떤 풍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이제 안전하게 잘 끝났으니까 제도 지내면서 거기 일했던 사람들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 없어지고 뭐 없어지면 그런 거 뭐 알겠어요?

물론 기록에는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뭘까 그냥 주춧돌로 해서 한다



했는데, 주춧돌하고 이거 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르죠. 그냥

면담자 : 건물 가면 그 앞에?

구술자 :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다 끝나고 그냥 뭐 그냥 의미가 다르죠.

그거하고 또 의미가 또 다르죠. 그건 그냥 해놓는 거지 형식적으로

면담자 : 건물마다의 역사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짓게 됐는지 전에는 뭐였는데 이렇게 바뀌고,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역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기록으로다가 해서 기록이 참 구질구질 귀찮고 막 그런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어떤 진화하는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면담자 : 학익동, 용현동 변환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 회사도 거기 있었고 하니까 기억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그래도
주택도 있고 학교가 있었으니까요.

맞은편이 다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은퇴하시고 한동안 못 가보다가 어쩌다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학익동, 용현동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

구술자 : 청라!

면담자 : 출근하시기에 괜찮으세요. 청라는?

구술자 :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면담자 : 지금 고속도로 한참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 많았었는데 그 소음 때문에 거기도
많았었던 말이

구술자 : 아 우리 동네요.

면담자 : 소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사 그 옆으로 왜 고속도로 큰 다리 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구술자 : 저기 여기에서 동양화학 그거? 그거가 진짜 그러니까 소음이 나는 거기 안 살아봐서
소음이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지금 저 뭐야 그거 돔으로 우선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게



돔으로 다.

면담자 : 결국 돔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때 왜 불이 한 번 나가지고 되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과연 동의 할까 했는데.

구술자 : 돔으로 하는 거로, 그거를 지하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1조 4천억인가 얼마가 든대요.

면담자 : 하긴 철거하는 것도.

구술자 : 그게 그건 도저히 DCRE에서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진짜 오히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주민들은 도로 지하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지 그래서 우선은 아마 돔으로 하는 거로 결정 난 거로 해라.

면담자 : 그러면은 그거 공사하면서 아파트도 거기다 계속 짓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제가 학익동 제가 그래서 그분 옆에서 알죠. 그때 막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거를

면담자 : 계속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DCRE인가 그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거기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회사에 이제 회의를 구 차원에서 계속 조정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구술자 : 그거 뭐 자기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 때문에 그거를 뭐 거기 고속도로를 노선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진짜 들어와 있는 거 뻔히 알고 차 다니는 거 알고 그러면은 거기 지하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분양가를 더 올려서 했어야지 진짜 그렇다면은 대충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면담자 : 그러면 조만간 그 돔 공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긴 한 번 또 사고가 있었으니까 안전한걸로.

구술자 : 그렇죠. 불연재 써 갖고 하겠죠.

면담자 : 어쨌거나 이렇게 사장님 또 만나서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구술자 : 고맙습니다. 저도 또 이게 미력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면담자 : 그때 전에 사장님 잠깐 뵈고 와서 어떤 질문드릴까? 막 찾다가 우연히 그렇게 본



거예요. 슈퍼 콘크리트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 차도 청소한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드릴로 청소하는 거 보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좀 두껍게 쌓여 있게 되면 드릴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깔린다던가 하는 일이 생긴다고.

구술자 :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헬멧 쓰고, 다 안전 장치 하고 들어가야죠.

면담자 : 먼지 장난 아니고.

구술자 : 그러니까 안전 장치, 마스크 다 하고 해야죠.

면담자 : 제 생각에는 그걸 이렇게 굴려서 갔다 왔다만 생각했지.

그거를 청소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한다는 생각까지는 못한 거예요.

구술자 : 평소에 철저하게 매일매일 청소를 세척을 해내야죠.

면담자 : 차는 자기가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렇죠. 그래서 차를 다 개인한테 주는 거죠.

이게 회사 차다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내꺼야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가 되고.

면담자 : 그러면은 좀 더 있으면 자동 로봇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구술자 :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로봇 만드는 사람들도 그게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죠.

면담자 : 그래도 뭐 빌려서 쓸 수 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모든 작업이 로봇화 되고 있으니까 그런 로봇들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구술자 :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뭐야 자율주행 나오면 다 날아가!

면담자 : 자율 좀 너무 무서워요.

구술자 : 자율주행 나오면 다 날아가는 거, 이거 이거야말로 딱 입력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 도착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죠.

또 반대로 자율주행 나오면 복잡한 게 아니니까?

면담자 : 요즘에 재료 수급에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구술자 : 그렇죠. 건축 경기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면담자 : 많이 건축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재료비는 얼마나 상승되었어요?

자갈이며 모래며.

구술자 : 많이 상승돼 있는데 판매 단가는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단가를 받지.

수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비싸도 이걸 원가에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건 있죠. 또 공급과 수요가 안 맞으니까

면담자 : 요즘 너무 비싸져가지고 건축을 좀 재건축 같은 것도 미루고 막 이러나요?

구술자 :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거리가 있겠죠. 뭐 그거랑

면담자 : 그래도 어쨌건 그 자리에서 4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오시고 앞으로 또 한참 더 하실 것 같아요.

구술자 : 그럼요. 한참 더 해야지.

면담자 : 건실하게 학익동, 용현동

그 일대에서 자리 잡으시고 오래 유지해 주시는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구술자 : 고맙습니다.